

대수해(大樹海) 와 동물들



미쿠니고개 (三国峠)에서 본 토카치미츠마타 (十勝三股)의 대수해 (大樹海)

산시슭에 넓게 펼쳐져 있는 대수해(大樹海)

미쿠니고개 (三国峠)로부터 토카치미츠마타 (十勝三股) 방면의 대전망. 최근 칼데라인 것이 밝혀진 미츠마타 (三股) 분지에 침엽 - 활엽혼효림의 대수해 (大樹海)가 펼쳐져 있다. 이 국립공원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역이다. 광대한 다이세츠잔 (大雪山)의 삼림에는 불곰, 에조사슴, 북방여우, 에조리스, 담류, 북방죽제비 등의 포유류, 시마후쿠로우 (올빼미류), 까막딱다구리 등 많은 조류가 살고 있다. 다이세츠잔 지역에서 몇번의 목격이 있었던 환상의 세가락딱다구리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북방올빼미도 번식이 확인된 것은 히가시다이세츠 (東大雪) 지역 뿐이다.



북방여우



불곰

불곰은 다이세츠잔 (大雪山) 국립공원의 전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종주로 등에서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한다. 인간과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p14에 기록한 것처럼 코우겐 (高原) 온천지구의 불곰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에조사슴

에조사슴은 홋카이도 (北海道)의 거의 전역에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이세츠잔 (大雪山) 지역에서는 도로에서도 모습을 볼 기회가 많다. 증가한 에조사슴은 수목이나 고산식생, 혹은 농작물에 식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 외에,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식해에 의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주의환기를 시키는 등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 홋카이도는 개체수 관리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에조사슴



칼럼

대륙에 가까운 홋카이도 (北海道)의 동물상

일본 내에서도 홋카이도와 혼슈 (本州) 이남과는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가 꽤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포유류에서 반달가슴곰, 일본원숭이, 영양, 멧돼지 등은 홋카이도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반대로 불곰, 견은 단비, 시마리스 (다람쥐과) 등은 혼슈 이남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

이것은 홋카이도와 혼슈가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의해, 짧은 기간에 분리되면서 육생동물이 왕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할린과 연해주는 혼슈 보다는 늦게까지 육지가 연속되어 있어 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들과는 공통성이 강하다. 하지만, 연해주나 사할린에는 분포하고 있어도 홋카이도에는 서식하지 않는 동물도 있고,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일본 전역에 분포하는 일본 고유의 종류도 있다.

원시림의 기둥



주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있다.

예전에 시마후쿠로우는 홋카이도전역에 서식하며 개체수도 많았다. 취락 근처에서 살아 아이누 사람들은 이 새를 「코탄코로카무이 (마을의 수호신)」라고 부르며, 인간의 경호를 위해서 천상에서 파견되어 마귀를 쫓아버리고 코탄 (마을)을 지켜 주는 최고의 신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에 서식할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벌채되고, 많은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제방이 생기며, 연어나 송어가 올라올 수

없게 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금은 홋카이도동부를 중심으로 120 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있다. 환경성에서는 이 새의 멸종을 막기 위하여 새집 설치 등의 보호증식사업을 하고 있다. 다이세츠잔 (大雪山) 국립공원에서는 동부지역에 극히 소수가 서식하고 있다.



새집의 설치



시마후쿠로우 (올빼미류)

시마후쿠로우는 극동 아시아의 극히 좁은 지역에 분포하는 세계 최대급의 올빼미로 체장이 70 cm 정도로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北海道)에서만 서식 한다. 하천변을 서식영역으로 하며,

토우야마루 (洞爺丸) 태풍

1954년 9월에 홋카이도 (北海道)를 덮친 태풍 15호는 세이칸 (아오모리 - 하코다테) 연락선 토우야마루를 전복시켜, 다수의 희생자를 낸 다음부터 「토우야마루 태풍」이라고 불린다. 이 태풍은 홋카이도의 삼림에 전무후무한 풍해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커던 것은 다이세츠잔 (大雪山) 지역이었다.

지금, 반세기전의 피해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임상이 완전히 변했다고 알려질만큼 대량의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다. 이러한 대재해는 몇 백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삼림순환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르지만, 어두운 숲을 만들고 있던 거목의 소실은 삼림내건조를 가져와 동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